

특별광역연합 마중물…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동’

2026년 광주시정·전남도정

市, ‘AI·미래차·반도체’ 미래산업 육성
道, ‘AI·에너지수도’ 대부흥 비전 제시
姜시장 “더 큰 광주·전남 준비하겠다”
金지사 “호남 미래 함께 그려야할 때”

광주시·전남도가 2026년 시·도정 방향을 각각
‘AI·미래차·반도체’ 삼각축 미래산업 육성과
‘AI·에너지 수도 전남 대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 출범할 특별
광역연합을 마중물로 한 행정 통합 의지를 분명히 해 향후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해 광주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산업
육성▲9대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 신규 투자 ▲5곡 3특 균형발전 전략 ▲인재양성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광주시는 AI와 미래차, 반도체 삼각축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국가NPU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6천억원 AX 실증밸리 사업, 2조5천억원 규모의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비 617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200대’가 도심 곳곳을 누비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대한민국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지’ 조성도



송신년회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각각 시청 중회의실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성과와 내년 시·도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해묵은 난제를 해결해 온 힘을 발판 삼아 2026년을 ‘부강한 광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사진 왼쪽) 김 지사는 ‘AI·에너지수도 대부흥’ 도정 비전을 제시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병행해 광주를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AI 사관학교, AI 영재고, Arns 스쿨 등 미래산업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고 광주만의 라이즈(RISE) 사업과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 조선대·조선보건대의 글로컬대학 지원에도 집중해 인재 정주 기반을 다진다.

무엇보다 정부의 5곡 3특 전략에 발맞춰 더 큰 광주·전남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동반 성장의 실질적 출발점인 만큼 전남도와 함께 교통·산업·에너지·환경을 함께 설계해 궁극적인 ‘행정 통합’을 실현 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해묵

은 난제를 해결해 온 광주가 이제는 부강한 광주가 되도록 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 기조를 지역 전략으로 확장하는 ‘AI·에너지 수도 전남도 대부흥’ 전략을 추진한다.

새해 전남도정은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전남 ▲전남 과학기술 진흥 원년 선포 ▲AI 대전환 초혁신 전남 ▲남해안권 초광역 관광벨트 완성 ▲사람·현장 중심 전남형 복지·안전문화 실현을 골자로 한다.

내년에 추진할 핵심 사업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권역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AI 산업생



태계, RE100 산단, 국가수소특화단지 지정, 초전도체 시험설비 국가 핵융합 연구거점, K-우주항공·방산 혁신밸트,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A I 혁신, 전남형 농수축산업 AX 추진,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놓어총 기본소득 적극 등장 등이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다도해 선사인웨이(영광·부산 700km 서남해안 일주도로), 여수세계선박임대 성공 개최, 영암·광주 조고속도로·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신설,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육성 등의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전남형 생애주기 복지 완성, 전남형 출생보육 정책 확대, 통합대학 국립외대 설립·동서부 500명상 이상 규모 부속병원 설립, 과학적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 등 도민 생명·재산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지킬 계획이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울타리를 넘어 호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야 할 때”라며 “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40년의 행정 경계를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는 호남을 향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예산과 권한을 갖춘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는 순간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길로 즉시 나아갈 것”이라 고 강조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선거 코앞인데…민주 ‘여성특구’ 후폭풍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최종 확정

남구2·서구3·북구3·광산구5 선거구

‘결정 성급·당내 분열 우려’ 비판

시당 “후보자들 혼란 최소화 최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역의원 선거구 2
0곳 중 4곳을 여성경쟁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하기로 확정하면서 남성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공천 평등 논란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특구가 확정되면서 당 안팎으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지역위원장 간담회,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광역의원 여성특구 지정과 비례 대표 제한경쟁 시행 등을 최종 확정했다.

여성특구로 확정된 곳은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 등 4곳이다.

광주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여성 의무공천 비율(30%)과 공직선거법상 여성 추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당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여성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광주시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교차 원칙으로 기준에 지정되지 않았던 선거구와 선거 전략에 따라 이번 여성특구 지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과 ‘과정’이다. 여성특구 지정은 특정 선거구에서 남성 예비후보의 출마를 제한하는 구조인 만큼 사전 예고와 충분한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성탄절 ‘대체 휴무’ 25일자 신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

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운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규정’ 위반 6면

광주시건설협회장 공백 장기화될 듯 12면

KIA, 내년 시즌 반등 좌우 날개에 달렸다 16면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왔다!

광주 최초 초대형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

- ✓ 쇼핑·문화·여가가 결합된 광주의 매력 확산
- ✓ 지역 방문수요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
- ✓ 청년, 지역민을 위한 대규모 직간접 일자리 창출
- ✓ 도시이용인구 확대로 도심 전역 소비 활력 회복

더현대광주 : 복합쇼핑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랜드마크,
미래형 복합쇼핑몰

광주신세계백화점 : 문화예술

백화점+문화예술 기능 확장
프리미엄 아트&컬처 플랫폼

어등산스타필드 : 레저관광

남부권 체류형 글로벌 관광단지

